

오월 항쟁·광주학생운동 왜곡 기술 ‘촉각’

28일 국정교과서 공개 두고 지역 교육·역사계 긴장감
現 초교 교과서 기조 유지·최순실 게이트 관련성 주목

지역 교육·역사학계가 이달 말로 예정된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를 앞두고 5·18 광주민중항쟁과 광주학생독립운동 등 지역 현대사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교육계 안팎에서는 올해 초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초등학교 6학년 개정 사회과 국정교과서의 편향 서술·오류 기조를 그대로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그동안 베일에 싸였던 내용이 공개될 경우 또다시 격렬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정교과서를 주도했던 김상환 대통령교육문화수석이 최순실씨의 최측근 차은택씨의 외삼촌으로 알려지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국정교과서 관련성을 감안, 온 나라를 소용돌이로 몰고갈 메가

톤급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9일 광주시교육청 등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오는 28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e-북 형태로 공개키로 하면서 교과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관련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맞선 대안 역사교과서 개발을 진행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보조자료 개발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은 내용이 공개되면 6개 분야(선사·고대, 고려, 조선, 개화기, 일제강점기, 현대사)로 나눠 분석한 뒤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역사교사·학자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서술 방식을 비롯 ▲이승만·박정희·김대중 등 역대 대통령에 대한 언급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근대화론 및 친일세력에 대한 평가 등과 관련해 기존 역사교과서와의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TF에는 전국적으로 30여명의 집필진이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이 추천한 김택진 광주교육대 교수(고려사), 노성태 국제고 수석교사(지역사·현대사), 김보름 용두중 교사(현대사), 윤덕훈(고대사) 상임여교 교사도 참여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핵심 사안인 5·18 광주민중항쟁과 광주학생독립운동 부분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우선, 올 초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5·18을 설명하면서 ‘계엄군’, ‘발포’라는 용어가 빠지는가 하면, 마치 대규모 시위 때문에 군이 동원된 것처럼 왜곡해 서술되면서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

에 부딪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달 말 공개되는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도 비슷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비판적 전망도 나온다.

또 초등 사회과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호남 의병 활동 누락 부분이나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축소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 역사학계는 아울러 국정교과서 공개에 맞춰 내용을 분석한 뒤 보완·개선하면서 차별성을 확보할 대안 교과서를 만들어 내년 9월까지 내놓는다는 계획에 자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집필 책임을 맡고 있는 조범중 우석대 교수는 “기존 통사·중앙 중심의 교과서 기술 방향이 아니라 지역별·특정 주제별로 제작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민주·평화·인권·지역성이라는 영역을 차별화해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2
해질 17:30

달출 14:57
달짐 01:42

우산 준비하세요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5/10	보성	5/11	순천	6/13
여수	9/11	영광	4/9	전주	3/10
나주	3/10	진도	6/12	완도	3/10
구례	3/12	군산	3/8	강진	3/10
해남	5/12	남원	3/10	해남	8/11
장성	3/9				

◇바다 날씨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남서~서 0.5~1.0	
남부	면바다	북동~동 1.0~2.0	남서~서 0.5~1.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서~북서 0.5~1.0	
서부	면바다(동)	북동~동 1.0~2.0	서~북서 0.5~1.5	
면바다(서)	북동~동 1.0~2.0	북서~북 1.0~2.0		

◇생황지수

	보통
	보통
	낮음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3:17	09:53
	15:33	22:28
여수	11:10	05:21
	—:—	17:51

◇주간 날씨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7/16	5/18	8/19	10/20	10/19	8/17	8/16

광주 첫 얼음… 지난해보다 17일 빨라

9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올해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가운데 광주에서 첫 얼음이 얼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진한 고기압의 영향과 북사면각으로 기온이 떨어져 이날 새벽 광주에서 첫 얼음이 관측됐다.

광주의 첫 얼음 관측은 지난해보다 17일 빠르고, 평년(1981~2010년 평균)과는 같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곡성 영

하 2.8도, 구례 영하 1.9도, 화순 영하 1.8도, 나주 영하 1.5도, 광주 0.5도 등으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광주의 지표면온도는 영하 3.9도까지 떨어졌다.

한편 기상청은 11일 광주·전남은 오전에 일부 내륙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강수량은 5~20mm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촉구 천막농성

광주차별철폐연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9일 광주시에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과 ‘자립지원금 대폭 증액’ 등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됐지만 광주시는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조례는 황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이 광주 시민 2만6000여명의 서명을 직접 받아 주민 발의를 통해 제정됐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53개

지자체로 확산됐다”면서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조례 4조에는 ‘광주시장은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광주시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조례와 현장에 명시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농성에 돌입한 단체는 광주시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될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

법원 또 “한전 전기료 누진제 위법 아니다”

주민들 항소키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한 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9일 송모씨 등 101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한전의 누진제 약

관이 ‘약관규제법 제6조(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하느냐와 전기 사용자인 일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해 전기사업법 제4조에 반하느냐의 여부였다.

송씨 등은 변호인을 통해 “누진제 약관은 고액에게 부담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라며 “전기사용자인 일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전기사업법 제4조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누진단계와 누진율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의미다. 또 누진제는 수요억제를 유도하고 있을 뿐이지 전기소비자들에게 이익은 전혀 없는 반면 전력사용량에 따라 과도한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불이익만을 주고 있으며, 주택용만 생산원가 이상으로 받고 있어 다른 용도(산업용·일반용)의 전력에서 입은 손실을 떠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심 판사는 “산업용·일반용과 주택용 전기요금의 차이

는 산업용·일반용 전기 사용자에게 혜택을 준 것이지, 주택용 전기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누진제 약관이 일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전기사업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했다. 법무법인 인강의 광상언 변호사는 “공동체(국민)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와 동떨어진 법원만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LPG충전소] 화순읍 대리 대로변 터널식새차시설 사무실포함 토지 3,228㎡ 건물 355㎡ 감평가 12억7천4백 ▶ 최저가 7억1천4백
- ★ [공장] 서구 동천동 상무자동차전자학원인근 공장밀집지역 토지 1,226㎡ 건물 322.35㎡ 감평가 12억1천7백 ▶ 최저가 8억5천2백
- ★ [공장]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농공단지내 12m도로접 토지 6,600㎡ 건물 2,579㎡ 감평가 27억5천3백 ▶ 최저가 12억3천3백
- ★ [공장] 담양읍 삼관리 토지 9,902㎡ 건물 2,921㎡ 예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육가공공장 감평가 44억5천1백 ▶ 최저가 24억9천3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9,178㎡ 건물 5,842㎡ 장성백이사거리 인근 공장지대 감평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5억5천9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5,977㎡ 건물 2,122㎡ 동화사거리부근 공장지대 감평가 13억3천6백 ▶ 최저가 7억4천8백
- ★ [공장]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3,305㎡ 건물 1,054㎡ 대마일반산업단지내 감평가 35억2천7백 ▶ 최저가 7억9천2백

투자 추천 물건

- ★ [공장, 충전소] 광양시 진월면 진월C인근 4차선대로변 토지 12,914㎡ 공장 1,922㎡ LPG충전소 352㎡ 매매 37억5천
- ★ [공장] 전북 익산시 팔봉동 익산제2산업단지내 토지 6,627㎡ 건물 4,226㎡ 매매 19억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정문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 가능 상가 28억선 교환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무인텔] 북구 유동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4천만원 이상 수익 위치좋은 매매 20억
- ★ 광천동 재개발지역내 원룸 매매

수익형 추천

-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요양병원 허가 취득)
- ★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터리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 6억포함) 보증금 7천 월 4백6십 매매 13억5천
- ★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대단지면 토지 5,359㎡ 건물 595.4㎡ 2층공장 매매 평당 2백5십
- ★ 광주 북구 풍향동 6층건물 1층 마트 2~3층 목욕탕 4~6층 원룸 26개, 목욕탕 직영중 보증금 1억1천5백 월 9백7십 매매 18억
- ★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건물 999㎡ 보증금 1억 월 6백5십 매매 17억

병원, 공장 매매 및 임대 구함 / 광주 근교 토지 급 구함 /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